



## 골절에 의한 응급처치

이 희 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원장

과도한 운동이나 사고로 인해 뼈가 부러지거나 탈구(관절이 빠짐), 염좌(인대와 기타조직이 심하게 늘어나거나 뒤틀림) 등 근골격계의 부상을 입는 수가 많다.

부상자의 징후를 살펴보면 다치지 않은 쪽과 비교하여 변형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골절부위를 손으로 누르면 상당한 압통을 느낀다. 또한 뼈가 부러지면 혈관을 손상시키므로 출혈로 인해 부종이 생기고 상당한 통증을 느끼므로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본다.

관절이 빠지는 탈구는 변형된 모습으로 알 수 있으며, 신경이나 혈관을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관절을 원래 대로 돌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인대와 기타 조직이 심하게 늘어나거나 뒤틀려서 생기는 염좌는 움직이면 통증이 심하고 다친 부위의 피부는 내부출혈로 인해 색깔이 변한다.

골절이나 염좌가 의심되는 모든 환자는 병원으로 이동하기 전에 부목으로 묶거나 압박붕대로 감아서 반드시 고

정을 시켜야 한다. 부목을 대어주면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이나 신경, 혈관손상을 예방하며 출혈과 부종을 줄여 준다.

척추, 팔꿈치, 손목, 엉덩이, 무릎 같은 부위에 탈구나 골절이 된 경우엔 중요한 신경과 동맥이 가까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므로 똑바로 펴지 않고 발견당시 상태 그대로 부목으로 고정한다.





부목이 없을 경우엔 다친 부위를 다치지 않은 부위에 대고 함께 묶는 '자가부목'의 방법도 있다.

즉, 손가락이 다쳤을 경우 다치지 않은 한쪽 손가락과 함께 묶고, 다리일 경우에도 다치지 않은 다리와 함께 묶어서 부목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책이나 신문지를 접어서 사용하면 간편한 부목대용품이 될 수 있다.



부목으로 고정을 시킨 후에는 다친 곳을 쉬게 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가만히 두어야 한다. 움직이면 다친 곳의 혈액순환이 증가되어 심하게 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2~3시간마다 20~30분씩 얼음주머니를 48시간동안 대준다. 다친 곳을 차게 해주면 혈관을 수축시켜 부종과 염증을 줄여주고 동시에 통증과 근육경련을 줄여준다. 48시간 내에 다친 부위에 따뜻한 것으로 찜질을 하면 혈액순환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종과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부종을 미리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는 다친 곳을 압박붕대로 감아주면 혈관과 조각난 뼈까지 압박이 가해져 출혈을 줄일 수 있다.

너무 짝 조이지 않도록 감으며 상처아래쪽에서 시작하여 심장에 가까운 쪽으로 감는다.

또한 다친 곳을 심장보다 높이 올려주면 출혈과 부종을 줄여준다. 🌈